

‘농민생존법’ 거부한 송미령 유임에 농민들 ‘부글부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민단체·정치권 등 강력 반발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등
尹정부때 대통령 거부권 건의
전종덕, 사퇴 촉구 1인 시위도

윤석열 정부에서 농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육성법 등 농민 생존권과 직결된 법안을 적극 반대했던 인물이 다시 농정을 책임지게 된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국방·고용·보훈·농식품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부분 새 인물로 교체된 가운데, 송 장관은 유임하게 유임됐다. 대통령실은 ‘성과 중심의 실용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농민들의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한우법 등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 해당 법안들을 ‘농업을 망치는 법(농망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우법에 대해서는 “한우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돼지·닭 등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농민들로부터 “현장을 무시한 농정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쌀을 수매하거나 격리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법이다. 한우법은 수급 과잉 시 시장가격을 통해 한우값을 안정화하고, 한우 농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임 발표 이후 전남지역 농심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4일 무안 더블머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 농정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선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선언”이라며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 농지 규제 완화, 수입쌀 확대, 축산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현장 농민의 현실을 무시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적 전남새농민회장은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업계의 불만을 커지고 있다. 윤순성 전국한우협회 전남지회장은 “한우법은 한우값 폭락 시 시장가격 조치를 통해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한우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정전 전국한우협회장은 “축사 증·개축도 기준 사육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단 한 번만 허용되고 있다”며 “사육시설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주택의 세대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각종 규제로

축산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도 문제다. 현실을 반영한 규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송 장관은 윤 정부 시절 농민 관련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인물”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행보를 반복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도 “전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상임위 회의에서 송 장관 유임에 항의하며 퇴장, 이후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은 윤 정부에서 양곡법 거부권의 충실한 이행자였으며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 부르는 등 농

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책임농정을 말하면서 송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농민들이 풀아낸 내란세력을 다시 심는 꼴이다. 분노한 농민들의 트랙터가 이재명 정부를 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쟁점 법안과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민들과도 적극 대화하겠다. 과거 ‘농망법’이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있었다.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또한 “이번 인사는 송 장관의 경험과 실적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정책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송 장관에게 “갈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듣고 직접 조정해 나셔야 한다”며 현장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진용·정성현 기자

코스피, 3100선 돌파

중동 휴전 소식에 2.9% 급등
코스닥 11개월만 800선 회복

코스피가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3% 가까이 급등해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올라 약 11개월 만에 800선을 상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46.67포인트(1.55%) 오른 3061.14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빠르게 키웠다.

코스피 증가가 3100선을 웃돈 것은 지난 2021년 9월 27일(3133.64)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코스피 증가는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난 20일(3021.84) 이후 단 2거래일 만에 82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3100선마저 뚫어 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35억원, 2587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6396억원 순매도했다.

특히 국내 증시 대표 반도체주에 매수세가 몰리며 지수 상승 탄력이 더해졌다.

삼성전자는 4.31% 오른 6만500원으로 마감, 지난 3월 28일 이후 3개월 만에 ‘6만전자’를 회복했다.

SK하이닉스는 7.32% 급등해 27만 8500원으로 마감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대로 올라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증가가 800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8월 1일(813.53)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41억원, 641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2081억원 순매도했다.

연합뉴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25 8.30.-11.2.

너라는 세계
YOU, THE WORLD

디자인은 어떻게
How Design Embraces Humanity
인간을 끌어안는가
Embraces Humanity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주최/주관: 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
Venue: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Hosts: Gwangju Metropolitan City / Gwangju Biennale Foundation

2025 광주 방문의 해
광주가가
왔다

축제가 온다!
스트리트퍼포먼스, 비어스테라, 프로축구 광주FC 경기, KIA이거즈 경기

즐거움이 온다!
아트파크, 동명커뮤니티, 송신년시민축제

빛이 온다!
ACC월드뮤직페스티벌,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세계인이 온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 9. 5.~12.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2025. 9. 22.~28.

광주광역시 Gwangju City